

“연말 홈파티 酒 고객 잡아라”...유통가 신제품 출시 나서

보해양조, ‘디아블로’와 콜라보 매운맛 와인 증류주 ‘악마의 영혼’ 출시 롯데백화점, 크리스마스 샴페인 에디션·롯데마트, 위스키 컬렉션 판매

지역 유통업체가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주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주류 상품을 출시하거나 할인 판매하는 등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선다. 연말 각종 홈파티 또는 고급 주류 선물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역 백화점, 대형마트 업체는 크리스마스 시즌 한정판 샴페인, 위스키 등을 신규 출시하고, 편의점 업체 역시 주류 상품들을 잇따라 단독 출시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대표 주류기업인 ‘보해양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인 ‘디아블로’와 콜라보한 새로운 증류주를 선보인다.

20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광주점은 크리스마스를 한달여 기량 앞두고, 크리스마스 시즌 특별 한정판 고급 샴페인인 ‘골든블랑 크리스마스 에디션’을 출시했다.

골든블랑 샴페인은 218년 역사의 ‘볼레로 샴페인 하우스’에서 빚어낸 프리미엄 샴페인으로, 36개월 이상 숙성해 중후하면서 화사한 풍미가 특징이다.

이번에 출시된 골든블랑 샴페인은 롯데백화점이 2024년 크리스마스 시즌 테마로 내세운 ‘윈더폴 쇼

타임’을 디자인에 반영했으며 패키지로 판매한다. 패키지는 ‘골든블랑 5스타 브뤼(750ml·1병)’와 샴페인 잔(2개) 세트로 구성됐으며, 광주점을 비롯한 전국 롯데백화점에서 600명 물량을 한정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한정판 위스키 컬렉션 ‘스페셜 릴리즈 2024’를 단독 출시한다. 스페셜 릴리즈 2024는 ‘조니워커’, ‘기네스’ 등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주류 브랜드 ‘디아지오’가 선보인 ‘싱글몰트 위스키’ 8종으로 구성됐다.

롯데마트는 오는 27일까지 온라인 사전예약 판매를, 12월 5일부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스페셜 릴리즈 2024를 선보일 계획이다.

지역 편의점 업계에서도 다양한 제품을 단독 출시하는 등 연말 주류 특수를 겨냥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GS25는 최근 세계 3대 ‘세리 캐스크 위스키’를 단독 출시하고, 41명 한정 판매했다.

CU는 지난 20일 스코틀랜드 정통 블렌디드 위스키인 ‘킬리두’와 글로벌 인기 게임 ‘디아블로’ 콜라보 증류주를 각각 국내 단독 출시했다.

특히 ‘디아블로’ 콜라보 증류주인 ‘악마의 영혼

(DEMON'S SPIRIT)’은 지역 대표 주류기업인 ‘보해양조’와 글로벌 게임 기업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협력해 출시한 제품으로, 블리자드의 대표 인기 게임인 ‘디아블로’ 시리즈의 헤리티지를 담아 선보이는 특별한 술이다.

디아블로는 디아블로 I이 출시된 지 28년이 지난 지금도 강력한 영향력과 깊이 있는 스토리로 전 세계 수천만 명의 팬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악마의 영혼’은 디아블로 시리즈 중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디아블로 II: 레저렉션의 강렬한 메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디자인됐다.

특히 해당 제품은 붉은색 술로 디아블로의 배경인 성역의 지옥 물결을 연상시키고, 사슬 모양의 뚜껑은 봉인을 상징해 시각적 매력을 더했다. 맛 역시 청양고추를 집출해 구현한 ‘스파이시’한 맛과 와인 증류주의 부드러운 향과 어우러져 은은한 매콤함과 깔끔한 마무리로 깊은 여운을 남긴다.

글로벌 인기 게임의 세계관을 술에 담아낸 이번 협업은 새로운 소비층을 겨냥한 브랜드 확장의 일환이다. 더불어 연말 주류 수요 증가 추세에 발맞춰 신선한 제품을 출시해, 소비자에게 신선한 경험과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악마의 영혼’은 25도, 500ml 용량으로 출시되며, 20일부터 전국 CU 편의점에서 단독으로 판매된다. ‘포켓CU’ 앱을 통해 재고를 조회할 수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20일 롯데백화점 직원이 ‘골든블랑 크리스마스 에디션’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광주신세계, 올해 대세 차분한 ‘드뮤어룩’ 선보인다

샌드베이지 등 신규 브랜드 입점

광주신세계는 20일 “최근 신규 브랜드를 대거 오픈하면서, ‘양전환’이라는 뜻을 가진 ‘드뮤어룩’ 제품들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올 한해 우아하면서도 절제된 스타일을 강조하는 ‘올드머니룩’ 트렌드보다 더 나아가 한층 더 차분한 스타일을 강조하는 ‘드뮤어룩’ 트렌드가 떠오르면서다.

광주신세계는 ‘샌드베이지’, ‘썬누스’, ‘노이어’ 등 새로 입점한 브랜드 등에서 F/W 시즌 드뮤어룩을 선보인다.

우선 지난 10월 광주신세계 본관 5층에 오프라인 정구 첫 매장 문을 연 ‘샌드베이지’는 오는 24일까지 무스탕 등 일부 제품에 대해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샌드베이지는 지난해 브랜드 첫 런칭 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센텀시티점 등에 팝업 매장을 열고, 올해부터는 프랑스와 미국, 이탈리아에 진출하는 등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샌드베이지는 자연스러운 색감의 차분한 제품들로 25~35세 사이 젊은 여성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같은 층에 입점한 ‘썬누스’는 신규 오픈을 기념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아우터 전품목을 10% 할인 판매한다.

썬누스는 검정색의 간결한 외형의 아우터를 주로 선보인다. 간결하면서도 편안한 아우터 제품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플레이 스무트 문을 연 ‘노이



어’도 단조롭고 절제된 색감과 고급 소재를 활용한 차분한 스타일의 드뮤어룩을 선보인다.

노이어는 지난 2013년 런칭한 뒤, 최근 광주신세계에 호남지역 첫 오프라인 매장을 입점시키면서 20~30대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김윤철 광주신세계 패션팀장은 “드뮤어룩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차분한 스타일의 브랜드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광주신세계에서 다양한 드뮤어룩 스타일의 브랜드들을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홈플러스, 메가푸드위크...“한우·킹크랩 반값”

27일까지 김장대전도

홈플러스가 오는 21일부터 27일까 ‘코세페 홈플러스 메가푸드위크’ 마지막주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우 제품을 최대 ‘반값’에 선보이고, 제철을 맞은 과일과 채소, 간편식 등 인기 먹거리들을 대거 할인판매한다.

홈플러스는 행사기간 동안 ‘농협안심한우(100g)’ 전품목을 오프라인 마트에서 구매 시 마 이홈플러스 멤버북가로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한우 품목들은 유전자 검사 및 항생제 잔류 물질 검사를 통과한 품목으로, 수요가 많을 것

로 예상됨에 따라 조기품절될 수 있다.

또 제철을 맞은 ‘새콤달콤 햇 딸기(500g)’는 7대 카드(광주·신한·삼성·국민·롯데·농협·전북) 결제 시 1만 7990원에, ‘폼무원 계란’ 전품목은 최대 3000원 할인한다.

간편식으로는 ‘파이·비스킷 30종(교차구매 가능)’을 3개에 9900원, ‘봉지라면·우유기 즉석밥’은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한다.

이밖에도 4대 카드(신한·삼성·롯데·농협) 결제 시 ‘국내산 새콤수확 양상추’를 30% 할인판매한다.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는 ‘MEGA 4일특가’ 행사도 진행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이마트, 28일까지 ‘동계 차량용품 할인전’

이마트가 다가오는 겨울을 맞아 자동차 보수를 계획하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차량용품 할인행사를 마련했다. 이는 고물가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차량 엔진오일, 와이퍼 등 정비에 필요한 소모품을 직접 구매하고, 교환하거나 공임 서비스만 이용하는 ‘셀프 차량 관리’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 결과다.

이마트는 오는 28일까지 ‘동계 차량용품 할인전’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타이어, 부동액, 동결방지제, 와이퍼 등 동계 차량용품 70여 가지를 최대 35%

할인한다.

우선 오는 28일까지 이마트 전 점포에서 동결방지제 및 부동액, 김서림 및 성에 제거제, 스프레이 체인 등 겨울철 차량 관리 품목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또 자동차 관리 브랜드인 ‘스피드메이트’와 협업해 스피드메이트 특점 상품인 ‘수입차용 와이퍼’를 할인가에 내놓는다.

고객 수요가 높은 타이어에 대해서는 행사 기간을 일주일 연장한다.

/장윤영 기자 zzang@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